게임 시나리오

배경이야기: 무사의 혼

-고려의 무사, 헌우

문명의 파괴자 몽골과 전쟁으로 고려는 초토화가 되었다. 무신정권과 정규군들은 강화도에 박혀 나오지 않았고 강화도 이외의 지역은 고려의 의병들이 알아서 몽골군과 싸우는 상태였다. 이런 시대에서 운명이었는지 타고난 싸움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헌우다. 헌우는 여진족과 교류가 잦았던 동북부 쪽의 사람이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에 눈을 떴다. 그의 가족은 몽골에 의해 잔인하게 죽었고, 그날 헌우는 복수를 위해 싸우고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헌우는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의 실력을 깨달았지만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무사는 아니었다. 그는 몽골과 싸우기 위해 의병들과 힘을 합칠 줄 알았다. 헌우의 실력은 1대1 무사간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아비규환이 벌어졌을 때 생존하면서 최대한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몽골의 얼굴탑(시체의 얼굴을 쌓아 올리는 탑)을 볼 때마다 복수심과 실력을 더 키워갔다. 헌우는 몽골과 싸울 때 기가 막히게 몽골인들을 잡아죽였다. 몽골군은 용병들로도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용병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 몽골인만이였다.

그러나 그 역시 한 낱 인간에 불과했다. 몽골이라는 큰 대세를 상대로 애초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몽골군은 헌우라는 고려인을 결국 붙잡는데 성공했고, 그 동안 수많은 몽골인을 죽인 헌우를 그냥 죽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 북방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헌우는 끝내 북방에서 숨을 거뒀고 그의 시체는 버려졌다. 그렇게 헌우는 귀신이 되어 수백년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운명의 무녀를 만나기 전 까지말이다.

.

**#1. 화면:** 소진과 소진을 인도하고 있는 영혼이 허허벌판에 앉아 있는 무사에게 간다**.**

**#1. 화면 텍스트:**

소진: 당신이 무사인가요?

헌우(무사): 무녀, 너는 내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거라. 나는 억울함을 가져 구천에 머물러 있지만 너 같은 어린 무녀에게 붙어 내 원한을 푸는 그런 귀신들과 다르다. 나의 억울함은 큰 산과 같아서 그걸 담을 만한 인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말거라.

소진: 저 또한 한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부모를 외적에게 잃었습니다. 제 복수와 원한을 풀 초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초인의 존재를 무사께서 아신다고 어떤 영혼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어 인도해주세요.

영혼: 무사께서는 이 무녀의 힘을 못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무녀는 보통의 인간이 아닙니다. 무사의 원한을 풀어줄 그럴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헌우: (소진을 보며)정녕 네가 그런 그릇이라면 내 묻겠다. 그 초인의 존재를 나 또한 살아 있을 적에 찾아 헤메었다. 그러나 그 초인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인은 귀신의 세계에 머물러있다. 귀신들은 그 초인을 만날 수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만날 수 있는데. 귀신의 세계에 들어갈 인간이 있는가? 거기서 수많은 귀신들이 인간에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 세계에 가고자 노력하였고 수많은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를 들어갔건만 결국은 나 역시 귀신이 되어 이렇게 떠돌고 있다. 그리고 초인을 만날 수가 없다.

소진: 전 이미 살아도 산 몸이 아닙니다. 피눈물로 일본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맹세하였고 그것을 이룰수 만 있다면 귀신의 세계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초인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헌우: 무녀, 정녕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다. 내 혼을 한번 받아서 버틸 수만 있다면 내 직접 너를 인도하겠다.

**#2. 화면:** 헌우는 소진에 빙의한다. 그리고 소진의 몸이 자신을 받아 들 일수 있는 것을 확인후, 마침내 귀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초인을 찾으러.

**#2. 화면 텍스트:**

헌우가 빙의한 소진: 기껏 어린 무녀인데, 내 혼이 받아진다니 믿을 수 가 없구나. 좋다. 무녀, 내가 인도하마. 그러나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후회해도 멈출 수 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니……

**게임의 내용:**

.